

##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

손 민 정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부교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198명(남 49명, 여 1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 고통감내력 부족 척도(DII), 한국판 분노반추 척도(K-ARS),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 질문지(SRASBM)를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기제에서 정서적,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치료 표적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학술적, 임상적 함의가 있다.

주요어 : 경계선 성격장애, 고통감내력, 분노반추, 공격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혜인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Tel: 02-760-0490 / E-mail: hichang@skku.edu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정동과 자아상, 대인관계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을 증상으로 하는 성격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를 진단받는 개인들은 화를 조절하지 못하여 부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만성적인 공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임상적 특징을 가진다(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의 이러한 임상적 특징들은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손상시키고 환자 스스로에게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의 타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Lenzenweger & Cicchetti, 2005).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두드러지는 불안정성과 충동성이 외부로 표출될 경우 이러한 특성은 공격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70% 이상이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ewhill, Eack, & Mulvey, 2009).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수행되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공격성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이다(Anderson & Bushman, 2002; Goodman & New, 2000). 공격성은 형태나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타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힘을 이용하여 해를 입히는 경우 '신체적 공격성', 악의적인 소문이나 거짓을 유포하여 타인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을 포함하는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칭한다(Crick & Grotpeter, 1995; Dodge, Coie, & Lynam, 2006). 한편 개인이 사회적 위협을 지각했을 때 그러한 도발을 야기한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반응적 공격성',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도적 공격성'이라고 한다(Bandura, 1973; Berkowitz, 1963; Dodge & Coie, 1987).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특히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Newhill et al., 2009; Ostrov & Houston, 2008).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은 타인으로부터 거절 당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방해하며(Werner & Crick, 1999), 그로 인해 발생한 대인관계적 어려움은 자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Brodsky, Groves, Oquendo, Mann, & Stanley, 2006). 따라서 경계선 성격성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은 이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정서조절곤란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Linehan, 1993). 정서조절곤란이란 정서의 인식과 이해, 수용과 더불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과 상황적 요구에 기반하여 정서조절전략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Gratz & Roemer, 2004). 생물사회적이론(Biosocial Theory)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 개인들은 기질 및 유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취약성을 가지며, 이는 아동기 학대 경험 및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포함한 정서무시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한다(Linehan, 1993). 이들은 개인이 가진 행동 기술을 억제하고 부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격성 혹은 자살행위와 같은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Linehan, 1993).

특히 최근에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조절 곤란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고통감내력이 주목받고 있다. 고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이란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견뎌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을 의미하며(Simons & Gaher, 2005),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질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된다(Kiselica, Webber, & Bornovalova, 2014). 고통감내력은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장애, 섭식장애, PTSD, 약물사용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달 및 행동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Akbari et al., 2022; Corstorphine, Mountford, Tomlinson, Waller, & Meyer, 2007; Daughters et al., 2005; Keough, Riccardi, Timpano, Mitchell, & Schmidt, 2010).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의 고통과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에 부적응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며, 불쾌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 회피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개인들은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나 부정적인 양육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취약하며, 정서적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다(Linehan, 1993; Putnam & Silk, 2005). 따라서 그들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강렬한 정서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정서적 연쇄 반응을 무디게 하는 행동에 즉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Selby & Joiner, 2009).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사

람들은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ornovalova et al., 2008; Gratz, Rosenthal, Tull, Lejuez, & Gunderson, 2006),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황수미, 이문희, 2021). 한편 고통감내력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은 더 많은 공격 행동의 과거력과 관련이 있었으며 전반적인 행동적 공격성을 증가시켰다(McIntyre, 2013; Shadara, Dehghani, Heidari, & Mahmoud Aliloo, 2021). 즉, 고통감내력이 낮은 개인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정서홍수모델(Emotional Cascade Model)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이 행동조절곤란의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반추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Selby & Joiner, 2009). 반추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 및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하나이다(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정서적으로 취약한 개인은 부정정서를 경험했을 때 반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Selby & Joiner, 2009). 그 결과 부정정서의 강도가 증가하고 오히려 반추가 더 활성화되는 정서적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끊어 내기 위해 자해나 공격행동과 같이 조절되지 않은 행동을 통해 과도한 정서적 몰입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자 한다(Selby & Joiner, 2009).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정서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서를 수용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정서가 유발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로 인하여 반추를 사용하게 된다(Papageorgiou & Wells, 2001). 그러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감소시켜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정서를 더욱 악화시켜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증폭시키고, 고통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Moberly & Watkins, 2008; Selby & Joiner, 2009).

한편 반추는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울반추는 우울증상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과 생각을 의미하며(Nolen-Hoeksema, 1991), 분노반추는 분노를 경험한 후에 분노 사건에 대해 비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유형의 반추는 심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씩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Martino et al., 2018; Peled & Moretti, 2010). Martino 등(2018)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이 행동조절곤란을 예측하는 관계에서 우울반추와 분노반추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서조절곤란이 분노반추를 매개하여 공격성을 예측하였으며, 우울반추를 매개하여 자해를 예측하였다. 아울러, 경계선 성격장애에서는 다른 부정정서보다도 특히 분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cott et al., 2017), 다른 유형의 반추보다도 분노반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er & Sauer, 2011). Krauch 등(2018)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이 건강한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공격성을 보였으며, 이는 실제 뇌 영역의 활성화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Krauch et al., 2018). 분노는

개인의 자기 통제 및 충동 조절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동에 대한 조절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Denson, Pedersen, Friese, Hahm, & Roberts, 2011), 공격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기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때 분노반추는 분노정서에 주의를 집중시켜 정서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공격성과 같은 부적절한 분노 표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Bushman, 2002; 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Peters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분노반추에 초점을 두었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Jeffries, McLeish, Kraemer, Avallone, & Fleming, 2016; Leyro et al., 2010). 구체적으로, 고통감내력은 개인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ffries et al., 2016; Larrazabal Carrillo, 2019). 정서적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한 개인은 부정정서가 유해하다는 믿음 때문에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으로는 고통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Jeffries et al., 2016, Leyro et al., 2010). 아울러, 선행연구들에서 고통감내력과 반추는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Jeffries et al., 2016; Larrazabal Carrillo, 2019; Magidson et al., 2013), 이는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이 높은 수준의 반추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숙과 정은정(2019)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통감내력과 반추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 연구는 여럿 존재하지만, 공격성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노정서에 대한 반추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분노정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분노의 강도가 증폭됨에 따라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Bushman, 2002; Bushman et al., 2005; Peters et al., 2015), 이러한 변인들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개인은 장애를 진단받을 만큼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정동,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환자들과 유사한 기능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rull, 1995). 또한 DSM에서는 성격장애와 정상적인 성격특성의 구분이 모호함을 근거로, 차원적인 접근의 도입을 통해 성격장애와 정상적인 성격 특성을 연속선 상에서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lark, Livesley, & Morey, 1997; Trull & Durrett, 2005; Widiger & Simonsen, 200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임상집단이 아닌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준임상 수준의 기능 장애를 보이는 개인에게 늦지 않은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한 발견을 이끌어낼 것이다. 아울러, DSM-5의 진단기준에 포함된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들은 정서, 대인관계, 행동, 자기인식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Gunderson et al., 2011), 모든 요소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유전적 원형이 존재할 때 경계선 성격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Gunderson, Fruzzetti, Unruh, & Choi-Kain, 2018).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불안정, 정체성 문제, 부정적인 대인 관계, 자해와 관련하여 경계선 성격장애를 예측하는 유전 및 환경적 취약성 요인이 발견되었음을 고려하여(Distel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 네 가지 요인을 측정하여 경계선 성격 특성을 정의하고자 한다(Morey & Meyer, 2014).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수준이 높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4.**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과 높은 수준의 분노반추를 차례로 거쳐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예측할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98명(남성49명, 여성 14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1.26세( $SD = 1.73$ )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참가자들에게 참가 점수를 부여

하였다.

측정도구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본 척도는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Morey (1991)의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를 변안한 측정 도구이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정서적 불안정, 정체감 문제, 부정적인 대인관계, 자기손상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3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고통감내력 부족 척도(DII; Distress Intolerance Index)**

본 척도는 McHugh와 Otto(2012)가 네 가지 고통 감내력 척도(FDS, DIS, DTS, ASI)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10개의 문항을 추려내 개발한 검사를 서장원과 권석만(2014)이 변안 및 타당화 한 측정 도구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으며(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참가자들이 각 점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 부족이 아닌 고통감내력을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분노반추 척도(K-ARS; Anger Rumination Scale)**

본 척도는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한 분노반추 척도를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타당화한 한국판 분노반추척도(Anger regulation scale)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기억 반추, 원인 반추, 보복 반추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으며(1점: 거의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반추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 질문지(SRASBM; 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본 척도는 Morales와 Crick(1998)의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 질문지(SRASBM)를 김현아와 장혜인(2016)이 한국어로 변안한 측정 도구이다. SRASBM 원척도는 관계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피해, 신체적 피해, 배타성, 친사회적 행동 6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공격성 양상을 고려해 관계적 공격성 문항 11개, 신체적 공격성 문항 6개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술통계치 및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V.4.1)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Model 6를 이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임의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였다(Little, 1988). EM 알고리즘 방식은 추정된 값으로 결측치가 대체되는 Expectation 단계와 대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대우도추정을 하여 추정치를 새롭게 수정하는 Maximization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으로, 다른 단일 대체 방식에 비해 분산 및 추정치의 왜곡이 덜 심각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덕준, 2009; Dempster, Laird, & Rubin, 1977; Gold & Bentler,

2000; Graham, 2012;).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차이검정

기술통계치 및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인인 공격성은 독립변인인 경계선 성격특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55, p < .01$ ). 공격성은 매개변인인 고통감내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r = -.33, p < .01$ ), 매개변인인 분노반추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48, p < .01$ ). 독립변인인 경계선 성격특성은 고통감내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r = -.55, p < .01$ ), 분노반추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1, p < .01$ ). 마지막으로 두 매개변인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49, p < .01$ ). 주요 변인들 간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N = 198$ )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경계선 성격특성	26.87	9.42	-	-	-	-
2. 고통감내력	19.91	6.93	-.55**	-	-	-
3. 분노반추	35.38	9.83	.61**	-.49**	-	-
4. 공격성	31.13	14.29	.55**	-.33**	.48**	-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남 *N* = 49, 여 *N* = 149)

변인	평균(표준편차)		<i>t</i> (196)
	남성	여성	
경계선 성격특성	1.10(0.46)	1.19(0.39)	-1.39
고통감내력	2.15(0.72)	1.94(0.68)	1.91
분노반추	2.23(0.69)	2.20(0.59)	.27
공격성	1.91(0.96)	1.80(0.80)	.79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고통감내력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으며( $B = -.91, p < .001$ ),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R^2 = .34, F_{1,196} = 42.71, p < .001$ ). 경계선 성격특성과 고통감내력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 = 1.10, p < .001$ ), 고통감내력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B = -.07, ns$ ), 모형의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R^2 = .31, F_{1,196} = 30.40, p < .001$ ).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고통감내력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6, 95\% CI = [-.07, .18]$ .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표 3.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단순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i>t</i>	95%CI		<i>F</i>			<i>R</i> <sup>2</sup>
					LL	UL	<i>F</i>	<i>df1</i>	<i>df2</i>	
고통감내력	성별	.13	.10	1.36	-.06	.32				
	경계선 성격특성	-.91	.10	-8.96***	-1.11	-.71	42.71***	2	195	.34
공격성	성별	.23	.12	1.94	-.00	.45				
	경계선 성격특성	1.10	.15	7.56***	.81	1.38	30.40***	3	194	.32
	고통감내력	-.07	.09	-.76	-.24	.10				

\*\*  $p < .01$ , \*\*\*  $p < .001$ ,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표 4. 고통감내력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i>B</i>	<i>Boot SE</i>	95%CI	
			LL	UL
고통감내력	.06	.06	-.07	.18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분노반추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B = .92,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R^2 = .37, F_{1,196} = 57.84, p < .001$ ). 경계선 성격특성과 분노반추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 $B = .88, p < .001$ ), 과 분노반추( $B = .31, p < .001$ )는 모두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R^2 = .35, F_{1,196} = 34.69, p < .001$ ).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노반추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14, 95\% CI = [.05, .23]$ .

표 5.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단순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i>t</i>	95%CI		<i>F</i>	<i>df1</i>	<i>df2</i>	<i>R</i> <sup>2</sup>
					LL	UL				
분노반추	성별	.11	.08	1.40	-.05	.27	57.84***	2	195	.37
	경계선 성격특성	.92	.09	10.75***	.75	1.09				
공격성	성별	.18	.11	1.61	-.04	.41	34.69***	3	194	.35
	경계선 성격특성	.88	.15	5.81***	.58	1.17				
	분노반추	.31	.10	3.06**	.11	.50				

\*\*  $p < .01$ , \*\*\*  $p < .001$ ,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표 6. 분노반추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i>B</i>	<i>Boot SE</i>	95%CI	
			LL	UL
분노반추	.14	.05	.05	.23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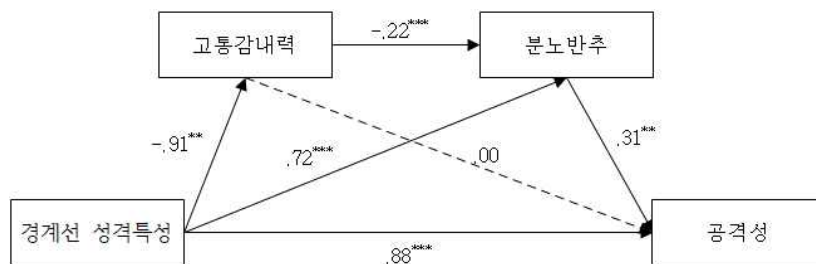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을 통제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고통감내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B = -.91,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R^2 = .30, F_{1,196} = 42.71, p < .001$ ). 다음으로 분노반추에 대하여 경계선 성격특성과 고통감내력을

표 7.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CI		F			R <sup>2</sup>
					LL	UL	F	df1	df2	
고통감내력	성별	.13	.10	1.36	-.06	.32	42.71***	2	195	.30
	경계선 성격특성	-.91	.10	-8.96***	-1.11	-.71				
	고통감내력	-.22	.06	-3.71***	-.33	-.10				
분노반추	성별	.14	.08	1.80	-.01	.30	45.66***	3	194	.41
	경계선 성격특성	.72	.10	7.34***	.53	.92				
	고통감내력	-.22	.06	-3.71***	-.33	-.10				
공격성	성별	.18	.11	1.59	-.04	.41	25.88***	4	193	.35
	경계선 성격특성	.88	.16	5.45***	.56	1.19				
	고통감내력	.00	.09	.01	-.17	.17				
	분노반추	.31	.10	2.95**	.10	.51				

\*\*  $p < .01$ , \*\*\*  $p < .001$ ,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유의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

모든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  $p < .01$ , \*\*\*  $p < .001$

그림 1.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동시에 투입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분노반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B = .72, p < .001$ ), 고통감내력은 분노반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B = -.22, p < .001$ ). 이 모형의 설명력은 41%로 나타났다( $R^2 = .41, F_{1,196} = 45.66, p < .001$ ). 마지막으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 고통감내력, 분노반추를 모두 투입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 $B = .88, p < .001$ )과 분노반추( $B = .31, p < .01$ )는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고통감내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 ns$ ).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고통감내력을 거쳐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B = -.00, 95\% CI = [-.14, .12]$ , 경계선 성격특성이 분노

반추를 거쳐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22, 95\% CI = [.07, .40]$ . 경계선 성격특성이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를 순차적으로 거쳐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6, 95\% CI = [.01, .14]$ .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특질적,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여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을 정적으

표 8.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B	S.E	t	95%CI	
				LL	UL
총 효과	.16	.12	9.48***	.92	1.40
직접 효과	.88	.16	5.45***	.56	1.19
간접 효과	.28	.10		.07	.49
매개효과1: X -> M1 -> Y	-.00	.07		-.14	.12
매개효과2: X -> M2 -> Y	.22	.08		.07	.40
매개효과3: X -> M1 -> M2 -> Y	.06	.03		.01	.14

\*\*\*  $p < .001$ . (X = 경계선 성격특성, M1 = 고통감내력, M2 = 분노반추, Y = 공격성)

로 유의하게 예측하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슬기, 2019; Newhill et al., 2009; Scott et al., 2017).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개인은 극단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APA, 2013), 이들이 보이는 관계적 측면의 공격성은 관심이 필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흔히 관찰되는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간에 분명한 연관성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나, 두 변인간의 상관( $r = .55$ )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공격성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 기제가 관여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둘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기제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이 특정 상황에서 항상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한다(Leyro et al., 2010). 예를 들어, 고통을 주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고통에 대한 내성이 생긴 개인의 경우, 융통성 없이 높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으로 인해 개인의 생존을 위한

동기를 무디게 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은 위협이 되기 전에 회피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막을 가능성이 존재한다(Leyro et al., 2010). 즉, 고통감내력이 정신병리 또는 행동 문제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통감내력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개인이 비록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정서를 경험했을 때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심리적 또는 행동적 어려움의 경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이지영, 정지현, 2016).

셋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분노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반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특히 분노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노에 대한 반추는 공격적 충동에 대한 위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제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맥락이다(Bushman, 2002; Bushman et al., 2005; Peters et al., 2015). 정서홍수모델의 해석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개인이 분노정서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정서적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문제적인 행동 경향성을 보일 위험이 있다(Selby & Joiner, 2009). 즉, 분노반추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이 가지는 상승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고, 이는 높은 수준의 분노반추 경향성으로 이어져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개인의 경우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반추와 같은 회피적인 전략을 사용하면 부정정서가 더욱 강화되어 공격성 수준을 높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rnovalova et al., 2008; Gratz et al., 2006; Leyro et al., 2010; Selby & Joiner, 2009). 순차매개모형에서 고통감내력은 분노반추를 통해서만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낮은 고통감내력은 공격성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인 분노반추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질적으로 불쾌한 정서를 견뎌내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데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Jeffries et al., 2016).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개인은 반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로 인해 정서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Papageorgiou & Wells, 2001). 그러나 반추는 개인으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단지 사건의 피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회피의 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만일 반추하는 부정정서가 분노일 경우, 정서적 강도의 증폭을 통해 고통감내력과 공격성이 가지는 상승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McIntyre, 2013; Shadara et al., 2021).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나 수용-전념치료(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CT)와 같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치료 패러다임에서는 고통감내력의 향상과 정서조절기술의 습득을 치료의 주요한 측면 중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Gratz & Gundersons, 2006; Linehan, 1993). 즉, DBT와 같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치료에서는 불쾌한 정서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방식의 대처를 억제하고 적응적인 대처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이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를 차례로 거쳐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 및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부정정서가 유발되는 인지적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교정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존하는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기제 중 일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적 고통에 대한 인내 및 정서조절전략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며 이들 구성요소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Gratz & Roemer, 2004; Jeffries et al., 2016; Larrazabal Carrillo, 2019; Leyro et

al., 2010; Magidson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맥락에서 핵심기제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을 구성하는 불안정한 정동, 충동성과 같은 임상적 특징들이 정서적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통감내력의 부족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Bornovalova, Marusiewicz, & Rojas, 2011). 더하여, 고통감내력이 경계선 성격특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Linehan, 1993),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종단적 설계를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각 기제들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간적 흐름 속에서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라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임상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성격장애가 정상적인 성격 특성과의 연속선 상에서 고려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장애 수준에 미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참가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편향되어 표본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Swartz, Blazer, George, & Winfield, 1990)에서, 본 표본은 실제 존재하는 성별에 따른 경계선 성격특성의 분포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분석시

에도 성별을 통제하여 성별이 연구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진단된 경계선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특성의 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운 바,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미래 연구에서는 성별이 보다 균등한 표집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각 변인들을 자기보고식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고통감내력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할 경우 자신이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공격성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에 있어 응답자의 편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적 측정도구와 공격성의 발현에 대한 실험실에서의 관찰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기제에서 고통감내력과 분노반추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공격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제로 간주되는 분노정서에 대한 반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반추를 다룬 선행연구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개인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고통감내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여러 부정정서 중에서도 분노와 그에 대한 반추 경향성에 집중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 권석만, 서장원 (2015). 고통 감내력과 심리장애: 경험적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97-427.
- 김덕준 (2009). SPSS를 활용한 결측치 처리 방안 비교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177-196.
- 김은숙, 정은정 (2019). 중년 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638-650.
- 김현아, 장혜인 (2015).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이슬기 (2019).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정지현 (2016). 부정 정서강도와 적응적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719-740.
- 정지현, 권석만 (2015). 고통 감내력의 두 측면: 주관적 인식과 행동적 반응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227-248.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259-271.
- 황수미, 이문희 (2021). 경계선 성격특성이 문체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과 충동성의 이중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1(3), 63-83.
- Akbari, M., Hosseini, Z. S., Seydavi, M., Zegel, M., Zvolensky, M. J., & Vujanovic, A. A. (2022).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51(1), 42-7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51.
- Baer, R. A., & Sauer, S. E. (2011).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ve rumination, anger rumin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2), 142-150.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kowitz, L. (1963).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 Bornovalova, M. A., Gratz, K. L., Daughters, S. B., Nick, B., Delany-Brumsey, A., Lynch, T. R., Kosson, D., & Lejuez, C. W. (2008). A multimodal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dysregul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ner-city substance users in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2(9), 717-726.
- Bornovalova, M. A., Matusiewicz, A., & Rojas, E. (2011). Distress tolera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intensity

-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levels. *Comprehensive Psychiatry*, 52(6), 744-753.
- Brodsky, B. S., Groves, S. A., Oquendo, M. A., Mann, J. J., & Stanley, B. (2006). Interpersonal precipitants and suicide attempt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6(3), 313-322.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r extinguish the flame? Catharsis, rumination,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6), 724-731.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lark, L. A., Livesley, W. J., & Morey, L. (1997). Special feature: Personality disorder assessment: The challeng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3), 205-231.
- Corstorphine, E., Mountford, V., Tomlinson, S., Waller, G., & Meyer, C. (2007). Distress tolerance in the eating disorders. *Eating Behaviors*, 8(1), 91-9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aughters, S. B., Lejuez, C. W., Bornovalova, M. A., Kahler, C. W., Strong, D. R., & Brown, R. A. (2005). Distress tolerance as a predictor of early treatment dropout in a residential substance abuse treatment fac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729-734.
- Dempster, A. P., Laird, N. M., & Rubin, D. B. (1977). Maximum likelihood from incomplete data via the EM algorithm.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39(1), 1-38.
- Denson, T. F., Pedersen, W. C., Friese, M., Hahm, A., & Roberts, L. (2011). Understanding impulsive aggression: Angry rumination and reduced self-control capacity are mechanisms underlying the provocation-aggression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6), 850-862.
- Distel, M. A., Willemsen, G., Ligthart, L., Derom, C. A., Martin, N. G., Neale, M. C., ... & Boomsma, D. I. (2010). Genetic covariance structure of the four main featur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4), 427-444.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719-788). New York, NY: Wiley.
- Gold, M. S., & Bentler, P. M. (2000). Treatments of missing data: A Monte Carlo comparison of RBHDI, iterative stochastic regression imputation, and expectation-maximiz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3), 319-355.
- Goodman, M., & New, A. (2000). Impulsive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2(1), 56-61.



- Graham, J. W. (2012). *Missing data: Analysis and design*. New York, NY: Springer.
- Gratz, K. L., & Gunderson, J. G. (2006). Preliminary data on an acceptance-based emotion regulation group intervention for deliberate self-harm among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r Therapy, 37*(1), 25-35.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1), 41-54.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0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4), 850-855.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underson, J. G., Fruzzetti, A., Unruh, B., & Choi-Kain, L. (2018). Competing theori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2*(2), 148-167.
- Gunderson, J. G., Zanarini, M. C., Choi-Kain, L. W., Mitchell, K. S., Jang, K. L., & Hudson, J. I. (2011). Family stud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its sectors of psychopatholog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8*, 753-76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Jeffries, E. R., McLeish, A. C., Kraemer, K. M., Avallone, K. M., & Fleming, J. B. (2016).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use of specific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 Modification, 40*(3), 439-451.
- Keough, M. E., Riccardi, C. J., Timpano, K. R., Mitchell, M. A., & Schmidt, N. B. (2010). Anxiety symptomatology: The association with distress tolerance and anxiety sensitivity. *Behavior Therapy, 41*(4), 567-574.
- Kiselica, A. M., Webber, T., & Bornovalova, M. A. (2014). Stability and change in distress tolerance and its prospective relationship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3), 247-256.
- Krauch, M., Ueltzhöffer, K., Brunner, R., Kaess, M., Hensel, S., Herpertz, S. C., & Bertsch, K. (2018). Heightened salience of anger and aggression in female adolesc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A script-based fMRI study.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2*, 57.
- Larrazabal Carrillo, M. A. (2016). *Distress Tolerance Predicts Day-To-Day Emotion Regulation Behaviors* (Master of Science, William & Mary - Arts & Sciences). <https://scholarworks.wm.edu/etd/1563899047/>.
- Lenzenweger, M. F., & Cicchetti, D. (2005). Toward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pproach to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4), 893-898.
- Leyro, T. M., Zvolensky, M. J., & Bernstein,

- A. (2010).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disorder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mong adult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576-600.
- Linehan, M. M. (1993).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NIDA Research Monograph*, *137*, 201-201.
- Little, R. J. (1988). Robust estimation of the mean and covariance matrix from data with missing valu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Applied Statistics)*, *37*(1), 23-38.
- Magidson, J. F., Lishaus, A. R., Seitz-Brown, C. J., Anderson, K. E., Lindberg, B., Wilson, A., & Daughters, S. B. (2013). Rumin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substance us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3), 456-465.
- Martino, F., Caselli, G., Berardi, D., Fiore, F., Marino, E., Menchetti, M., ... Sassaroli, S. (2015). Anger rumination and aggressive behaviour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9*(4), 277-287.
- Martino, F., Caselli, G., Di Tommaso, J., Sassaroli, S., Spada, M. M., Valenti, B., ... Menchetti, M. (2018). Anger and depressive ruminations as predictors of dysregulated behaviou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5*(2), 188-194.
- McHugh, R. K., & Otto, M. W. (2012). Refining the measurement of distress intolerance. *Behavior Therapy*, *43*(3), 641-651.
- McIntyre, A. W. (2013).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aggressive behavio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75*(3-B).
- Moberly, N. J., & Watkins, E. R. (2008). Ruminative self-focus and negative affect: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2), 314-323.
-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rey, L. C., & Meyer, J. K. (2014). Conceptualizing you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ithin a PAI framework. In C. Sharp & J. L. Tackett (Eds.), *Handbook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49-64). Springer, New York, NY.
- Newhill, C. E., Eack, S. M., & Mulvey, E. P. (2009). Violent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6), 541-554.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Nolen-Hoeksema, S., Wisco, B. E., & Lyubomirsky, S. (2008). Rethinking rumin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5), 400-424.
-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9), 1147-1158.
- Papageorgiou, C., & Wells, A. (2001). Positive beliefs about depressive rumination: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elf-report scale. *Behavior Therapy*, 32(1), 13-26.
- Peled, M., & Moretti, M. M. (2010). Ruminating on rumination: Are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differentially related to aggression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2(1), 108-117.
- Peters, J. R., Smart, L. M., Eisenlohr Moul, T. A., Geiger, P. J., Smith, G. T., & Baer, R. A. (2015). Anger rumina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aggression: The utility of a multidimensional mindfulness mode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9), 871-884.
- Putnam, K. M., & Silk, K. R. (2005). Emotion dys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4), 899-925.
- Scott, L. N., Wright, A. G., Beeney, J. E., Lazarus, S. A., Pilkonis, P. A., & Stepp, S. D. (201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aggression: A within-person process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4), 429-440.
- Selby, E. A., Anestis, M. D., & Joiner, T. E. (2008).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Emotional cascad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5), 593-611.
- Selby, E. A., & Joiner Jr, T. E. (2009). Cascades of emotion: The emerg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rom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3), 219-229.
- Shadara, Z., Dehghani, M., Heidari, M., & Mahmoud Aliloo, M. (2021). Distress Tolerance, Impulsivity and Aggression: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Reward Sensitivity i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Practice in Clinical Psychology*, 9(1), 37-50.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Swartz, M., Blazer, D., George, L., & Winfield, I. (1990).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he commun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3), 257.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Trull, T. J., & Durrett, C. A. (2005). Categorical and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1), 355-380.
-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623.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Widiger, T. A., & Simonsen, E. (2005). Alternative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Finding a common groun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2), 110-130.

원고접수일 : 2022. 11.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2. 12.  
게재확정일 : 2022. 12. 23.

##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Distress Tolerance and Anger Rumination as Sequential Mediators

Min-jeong Son<sup>1)</sup>

Hye-in Cha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distress tolerance and anger rumination as sequential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198 college students (49 males and, 149 females) who completed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distress tolerance, anger rumination, and ag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stress tolerance did not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whereas anger rumination did. Distress tolerance and anger rumina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Furthermore, the indirect eff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on aggression via distress tolerance and anger rumination was significant. This study expanded the literature by elucidating the conjoint roles of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 the mechanism for predicting aggression in relation to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underscores those factors as potential targets for intervention.

*Key words* :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 distress tolerance, anger rumination, aggression*

---

† Corresponding Author : Hye-in Chang /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03063)  
Sungkyunkwan-ro 25-2, Jongno-gu, Seoul / Tel: 02-760-0490 / E-mail: hichang@skku.edu